

Optic Weekly

www.opticweekly.com

깊이가 다른 안경 전문신문 주간 옵틱 위클리 2017년 11월 15일 발행(188호)



www.aoa.co.kr

저렴함과
하이퀄리티
모두 가졌다!



아 오 아

미미상사 02.333.1123

A/S 보강하는 안경원 **도매** 전문 site

www.fsleeco.com

(주)비아리코 서울 중구 퇴계로4길 16(남창동) FS빌딩 대표 02.319.2300 매장 02.319.0718

03 ISSUE

최근 한 단체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강력 주장함에 따라 '안경사의 콘택트 단독판매'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DESIGN BY
GERMANY

독일 최첨단 기술력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탄생하다

OPTOS

GERMANY TECHNOLOGY

더욱 더 편안한 개인별 완전 맞춤형
프리폼 양면 비구면 렌즈



- 독일 GF공법으로 넓고 편안한 시야 확보
- 개인별 완전맞춤형 렌즈 : 개인별 생체학적 특성과 착용습관까지 고려한 제작
- 안구의 회선 각도에 따른 설계 및 특수 최적화 설계 적용

- 슈퍼하드 멀티코팅으로 업그레이드된 내구성
- 무게와 두께감 40% 이상 감소(기존 자사 일반렌즈 대비 약 40%)
- 싱글비전, 누진다초점렌즈, 기능성렌즈(변색렌즈 가능)

Technical joint with GERMANY

OPTOS LENS



렌즈매니저 2018.01 메이러브 라인업 출/시/예/정

COMFORTABLE FOR A MONTH

MAY LUV

메이러브 클리어 실리콘 하이드로겔
1-month/ 1pack 2pcs



MAD ABOUT YOU

MAY LUV 3 CON

메이러브 3 CON 실리콘 하이드로겔 1-month/ 1pack 2pcs



Mad about you

MAY LUV

메이러브 데일리
1-month/ 1pack 2pcs



렌즈매니저
가맹 상담중

메이러브는 (주)안경매니저에서 새롭게 런칭한 콘택트렌즈 전문샵 렌즈매니저에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주)안경매니저
가맹 안내·문의

가맹 조건

구분	가맹비	월관리비
안경매니저	500만원	30만원
씨채널안경	500만원	20만원 원부 상권 별도 책정
아이피아	1000만원	30만원

※일부 지역 제외

가맹상담 및
상권분석

총	괄	이재형	본부장	010-9670-6666	
서울	· 경기북부	· 충북	서영태	팀장 010-9364-1739	
인천	· 강원	· 경기남부	· 충남	이준영	팀장 010-9424-5438
전남	· 전북	노용선	팀장	010-3092-9239	
대전	· 경상도	노장호	팀장	010-9976-5058	

NAVER

You Tube

facebook

각 검색창에 안경매니저를 검색하시면
UX컨텐츠 영상과 이벤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이피아



안경매니저



씨채널안경

www.aoa.co.kr

저렴함과
하이퀄리티
모두 가졌다!



아오아

미미상사 02.333.1123

ASAHI 1.67 / 1.74 양면바두면 UV 퍼펙트 출세!

안경렌즈에 생명을 붙여넣는 일, 시력에 활기를 붙여넣는 일
아사히 누진다초점렌즈가 거대 안경원을 신나게 만듭니다.

ASAHI-LITE JAPAN

아이미광학 T.02.774.4477 F.02.753.9262

또 불거진 온라인 판매... 콘택트법이 불안하다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서 모 협회가 강력 청원... '해외직구 빈번하니 온라인 판매 허용하자' vs '국민 안 보건 위해 불가하다' 의견 팽팽

최근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주장하는 청원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안경사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모처에서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의 분과회의에서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놓고 정부 관계자와 대안협, 모 쇼핑협회 인사들이 서로의 입장을 주장했다.

이날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국내에 소비자 해외직구가 만연한 사실을 예로 들며 법의 개정을 촉구했고, 정부와 안경사협회는 국민의 안보건을 이유로 허용을 반대했다. 지난 2011년 일명 콘택트법(안경원에서 안경사만이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다는 법안)이 공포 시행된 지 6년 만에 블랙홀에 빠지며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이다.

관계당국은 국민 안 보건 이유로 반대 의견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자라는 제안은 손톱 밑의 가시를 뺀다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 기요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지난해 4월 국무총리가 위촉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개최한 수출기업간담회에서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당시 이 회의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온라인 허용 확률이 80%가 넘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콘택트 온라인 허용 문제는 박근혜 정권의 탄핵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다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의 관련 분과회의에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 문제가 또다시 대두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모 쇼핑협회 측은 '콘택트렌즈는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쇼핑협회가 주장하는 내용은 '국내에서 온라인을 통한 콘택트렌즈의 구입이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선호하고, 따라서 이를 규제하는 현재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5항은 그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과제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 허용
□ [현황·문제점]	소비자가 콘택트렌즈를 본인의 사용목적으로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상황이나 국내 온라인을 통한 구입은 불가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발달, 구매형태의 다양화로는 안전 콘택트렌즈 판매 불가 □ 해외 구매대행, 사외검사 처방전 원부 후 온라인 판매 등 허용 요청
□ [쟁점 정리]	안경사협회 등은 찬성, 소관부처는 반대 입장
찬성	반대
· 소비자 피해 제로 구매하는 상황에서 그와 동등한 구매 절차인 구매대행 허용 필요	· 해외직구업체는 원상 복구되지 않음 ·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사용목적(의도)과 구매 목적(의도)은 다르므로 구매대행도 불가
· 청소년의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사용은 방지하여야 함 · 성인인증을 받은 후 온라인 판매 허용	· 성인인증, 본인확인 등을 국민안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온라인 성인인증을 보류
· 미국 등은 처방전을 첨부하는 경우 온라인 구매 가능	· 처방전 없이 판매해도 양자(미국, 호주)는 처방전을 발행하고 사용법 등의 교육을 제공하며 소비자 교육을 실시 · (국내) 의사가 처방전 발행 시 사용법 등을 교육하지 않고, 안전성과 안정성에 의거하여 처방전 없이도 판매할 수 있음 · (미국) 의사가 처방전 발행 시 사용법, 부작용 등에 대한 교육방법 상세 설명 · 의사의 상담 교육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법 추가제정, 간보 제정까지 고려 필요
· 전자상거래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의료기사법 등 개정 요청	· 현 법령에서 법 개정은 곤란 · 08년까지 가능했던 온라인 판매가 국민 안전(안)을 위해 11년 11월 30일부터 전면 금지됨 · 유사한 규제조치인 처방조제약 온라인 배송에 대해서도 불이용한 한해 판매(08.4.24) 존재
· 소비자 편의 증진, O2O 시장 확대	· 국민의 안전(안)을 관리해 위한 책임이 우리 행정안전부와 보건부의 국민 안전, 건강에 대해 우리

▲ 지난달 말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 분과회의에 제출된 회의 자료.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찬반양론이 정리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쇼핑협회의 관계자는 "미국, 호주, 일본 등은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국내의 많은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제 국내도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막을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콘택트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학생들의 무분별한 구매로 국민 안 보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콘택트의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성인인증 이후 구매하는 방법 등 보완책을 구상하고 있고, 특히 우리 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안경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자고 제안했으나 안경사협회 측에서 이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보건복지부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고유 판매권 흔들

지난달 27일 열린 이 회의에는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의 관계자 2인이 참석해 쇼핑협회 측의 주장에 반론을 제시하며 현행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안협의 한 인사는 "복지부와 식약처 모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의 부적합성을 강조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불가'로 잠정 결론났다"며 "우리는 국민의 안 보건의 중요성을 이유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결코 허

용되면 안 된다는 뜻을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우리 협회는 정관계 관련 인사들에게 국민의 안 보건을 위해 현행 콘택트법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라인 판매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부의 관련부처들은 해당 분과회의의 참고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미국, 호주 등과 처방전 발급 관련제도가 상이하고, 그 결과 현 시점에서 법 개정은 곤란하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료자원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와의 전화에서 "현재 관련사항에 대해선 아무 것도 결론된 것이 없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며 "우리 부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회의에 동시에 참석한 쇼핑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주장한 반면 복지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지 않았다'고 서로 다르게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회의 한 임원은 "연구용역이 사실이라면 정부에서 온라인 판매를 허용을 위한 자료수집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금 업계엔 모 외국계 콘택트렌즈 업체의 고위 관계자가 수시로 복지부를 출입하며 온라인 판매 로비를 벌였다는 소문이 있고, 그 때문인지 근래 정부에서 온라인 판매를 불가에서 허용으로 많이 기운 듯한 분위기"라며 아리송하게 답변했다. 계속해서 그는 "우리 중앙회는 콘택트의 온라인 문제를 한 번도 공식적으로 행한 적이 없는데, 이들이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주장해 기가 막힌다"고 말하기도 했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가부 문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방귀가 잘못되면 X 썬다'는 옛말이 있듯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것은 안경사에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안경렌즈와 함께 안경사의 자존심인 콘택트렌즈를 지키기 위한 안경사들의 철저한 이론 무장과 건전 유통이 그 어느 보다 필요한 때이다. /합동취재반

환경부, '안경원 슬러지' 공개 검증

최근 구미시 관계자와 공동으로 시료 채취... 세종시의 안경원 검사는 기준치 이하 확인

올해 중반 갑자기 사회문제로 불거진 안경원 폐수(슬러지)의 유해성 여부가 올해 안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환경부와 대한안경사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관계자 등은 구미시의 한 안경원에서 슬러지에 대한 공개검증에 나섰다. 지난 8월 대구안실련의 '슬러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발표 이후 슬러지의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개검증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채취된 시료의 분석은 대구지방환경청이 맡고, 관계부처인 환경부는 공개 검증 결과와 안경원 30여 곳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슬러지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지난 9월부터 세종시와 서울, 경기, 대구 등에서 안경원 시료채취를 실시한 환경부 수질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우리 부는 최근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구미에서 공개검증을 실시했다"며 "다만 제일 먼저 검사한



▲ 구미의 안경원에서 진행된 슬러지 시료 채취 모습.

세종시의 안경원 폐수는 검사 결과 허용량의 기준치 이하로 나왔고, 전국 각지에서 슬러지를 검사한 결과는 올해 안에 발표하면서 이를 토대로 적절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안협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이번 검사 결과 세종시뿐만 아니라 대구에서 채취된 시료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안경원의 슬러지 문제는 별다른 문제 없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독특

■ "요즘 안경원에 무면허자 무척 많습니다. 협회는 이런 상태 아는지 모르겠네요. 안경사란 직업, 이젠 안팎으로 조여 오네요."
(서울시 노원구의 한 중사 안경사)

■ "곧 안경사 국가시험이었는데, 솔직히 안경원 모습을 보면 수험생들에게 '안경사 좋다'고 못하겠네요."
(전남 순천의 한 안경사)

힘든 안경 제조 · 유통업체에 전안법 불통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내년 1월부터 모든 아이웨어에 KC마크 부착 의무화법 시행... 전안법 앞두고 대다수 안경제조 · 유통업체는 전전긍긍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안경테와 선글라스에 KC마크(Korea Certification mark)를 부착해야 유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안경류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공산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검증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KC,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비치해야 되는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안법은 안경 같은 생활용품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기 위해 안전인증대상에 대거 포함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안경테와 선글라스에 KC인증을 받지 않거나 KC인증 표시하지 않으면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 중개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안경관련 제조 · 유통업체들이 전전긍긍하는 전안법은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 발효되기로 확정되었으나 생활용품업체 대다수가 거세게 반발해 관련 시행규칙이 1년간 유예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지금 안경계를 비롯한 관련업체는 전안법 시행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에서 정한 안경테와 선글라스의 관련 시험항목은 선글라스의 경우 광투과율과 니켈 용출량을 검사하고, 안경테는 니켈 용출량으로 구분 검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련 인증은 (재)한국안광학산업

진흥원(원장 김원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김경식),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영찬) 등 5개 기관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현재 진흥원은 광투과율과 니켈 용출량 등 모든 시험장비를 보유한 상태로써 광투과율 시험은 건당 1만 3천원, 니켈 용출량은 건당 7만원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 안경테는 아직 시험 검사 및 방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임의로 KC인증 마크를 표시해도 상관없다.

국내 안경계는 안경테가 생활용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안법에 포함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의 한 안경테 생산유통업체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안경이 도입된 지 1백년 되도록 안경테가 소비자에게 한 번도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안법에 적용시키면 영세업체인 대구의 대다수 생산업체는 생산을 포기해야 한다”며 “전안법에 따르면 모델 별로 의무적으로 시험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경우 안경테 20가지 모델에 4가지 컬러에 KC인증을 받으려면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 판매는 KC인증을 마쳐야 판매가 가능하지만, 오프라인은 지금 당장 KC인증과 관련이 없다보니 인증을 의뢰하는 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며 “우리 진흥원은 전안법의 시행을 앞두고 업체들과 모임이 있을 때마다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또 대구안경사회나 광학공업협동조합 등에 협조를 구해 업체에 홍보방안을 마련할 계

획”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전안법과 관련이 없이 올해에 진흥원에 제품의 시험평가를 의뢰한 업체는 광투과율이 8개 업체의 33건, 니켈 용출량이 11개 업체 90건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영화)의 한 관계자는 “전안법의 가장 큰 문제는 모델이 바뀔 때마다 검사를 별도로 받는 것인데, 업계에선 제품이 아니라 코팅업체 등 원자재 업체를 검사해 이상이 없으면 해당 코팅이 사용된 제품에 일괄적으로 KC마크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기를 원한다”며 “예를 들어 시장에 진열된 모든 옷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의류의 원단을 검사하는 것처럼 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지난 6월 하순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팀이 대구업체를 대상으로 전안법 관련 조사를 진행했을 때 대다수 업체들이 ‘이대로 전안법이 시행되면 업체들의 폐업은 뻔하다’는 의견이 팽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안경산업에 종사하는 제조 ·



Tip. 메탈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항목별 KC인증을 위한 검사 여부

- ▶색상 변경 시: 색상은 염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자극,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각 검사 필요
- ▶로트번호 변경 시: 로트번호가 다를 경우 동일 소재라도 사용기한에 따라 첨가된 염료물질 변성 및 독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 필요
- ▶디자인 변경 시: 불필요하지만 같은 디자인이라도 소재의 변경이나 재질이 서로 다를 경우 독성 및 피부자극에 따라 검사 필요

유통업체의 관계자들은 오는 20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전안법의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에 눈과 귀를 모으고 있다. < >

한국안경의 수출... 계속 '봄바람'

8월까지 동기대비 수출 12% 상승... 전체 안경 무역수지는 7천만 달러 적자

우리나라 안경 수출이 지난 8월까지 활황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 최근 공개한 '2017년 8월 수출입현황'을 보면 올해 8월까지 수출은 3억 3천만 달러로 동기대비 12% 상승하고, 수입은 지난해 대비 2.6% 하락한 4억 1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 안경류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안경산업 전체 분야의 수출이 상승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락세인 안경렌즈를 제외한 안경테, 선글라스, 콘택트렌즈, 안광학기기 등에서 평균 18% 안팎으로 증가했다.

특히 안광학기기는 8월까지 7천 8백만 달러를 수출해 동기대비 30.3% 증가해 안

경류 수출의 상승을 주도했는데, 대전의 한 안광학기기 업체 대표는 “지난 4~5년 전부터 중앙아시아와 남아메리카 등 신흥 시장을 개척한 것이 비로소 성과로 나타났다”며 “광학기기는 안경테와 달리 시장에 뿌리를 내리면 뒤이어 지원기기와 관련 솔루션 등으로 적어도 5~6년 이상 수출이 유지되는 특성으로 광학기기의 향후 수출 전망은 매우 낙관적이다”고 전했다.

대구 한 아이웨어 생산 · 유통업체의 관계자는 “올해 선글라스 수출이 대폭 증가했지만 이는 국산 아이웨어 자체의 경쟁력이 아닌 가격 하락의 영향이 크다”며 “장기적으로는 지금처럼 수출이 계속 늘어나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안경관련 수출액이 지난 2012년 이후 3년 연속 평균 5.8%씩 하락세를 보이다 2016년에 들어서 1%의 증가로 돌아섰다는 것을 상기하면 ‘수출 활황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그의 말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안경렌즈는 3천 4백만 달러 수출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5% 하락한 4천만 달러를 나타냈다. 인천의 한 안경렌즈 업체의 관계자는 “최근 국내 안경렌즈 제조업체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해 사실상 국내에서 생산되는 안경렌즈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며 “우리나라의 안경렌즈 수출은 생지를 수입해 국내에서 코팅한 후 국산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마저도 향후 감소가 확실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경렌즈 수출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까지 전체 안경류 무역수지는 7천만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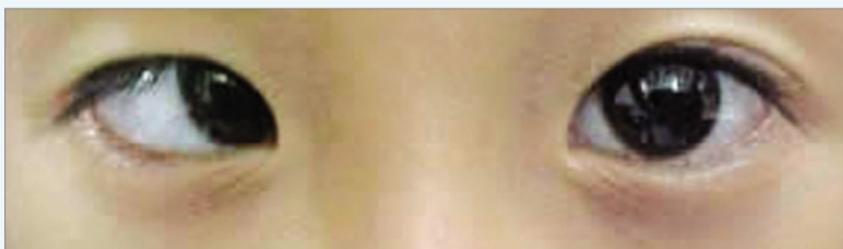


	수출	수입
2012	539,728,000	524,549,000
2013	501,457,000(▼7.1%)	533,001,000(▲1.6%)
2014	468,587,000(▼6.6%)	553,762,000(▲3.8%)
2015	451,024,000(▼3.7%)	589,124,000(▲6%)
2016	455,768,000(▲1%)	585,561,000(▼0.6%)
~2016. 8	298,659,000	422,814,000
~2017. 8	339,217,000(▲12%)	411,871,000(▼2.6%)

▲ 2012~16년 국내 안경관련 무역 현황
(단위: 달러/ 출처: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사시 환자의 50% 이상은 9세 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16년 전체 환자 중 51%가 9세 이하로 집계... 조기발견과 치료 중요



▲ 조절성 내사시(accommodative esotropia)를 앓고 있는 소년의 눈.

우리나라 사시 환자의 절반 이상이 9세 이하의 소아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1~16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시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 가운데 9세 이하가 6만 7000명으로 전체 환자의 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시가 많은 연령층은 10대는 3만 6000명, 20대는 7000명 순인데, 2011년 11만 9000명이던 사시 환자는 2016년에는 13만 2000명으로 연평균 2%씩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한 안과교수는 “사시의 진단과 치료는 소아기에 이뤄지는데, 시력 발달이 약 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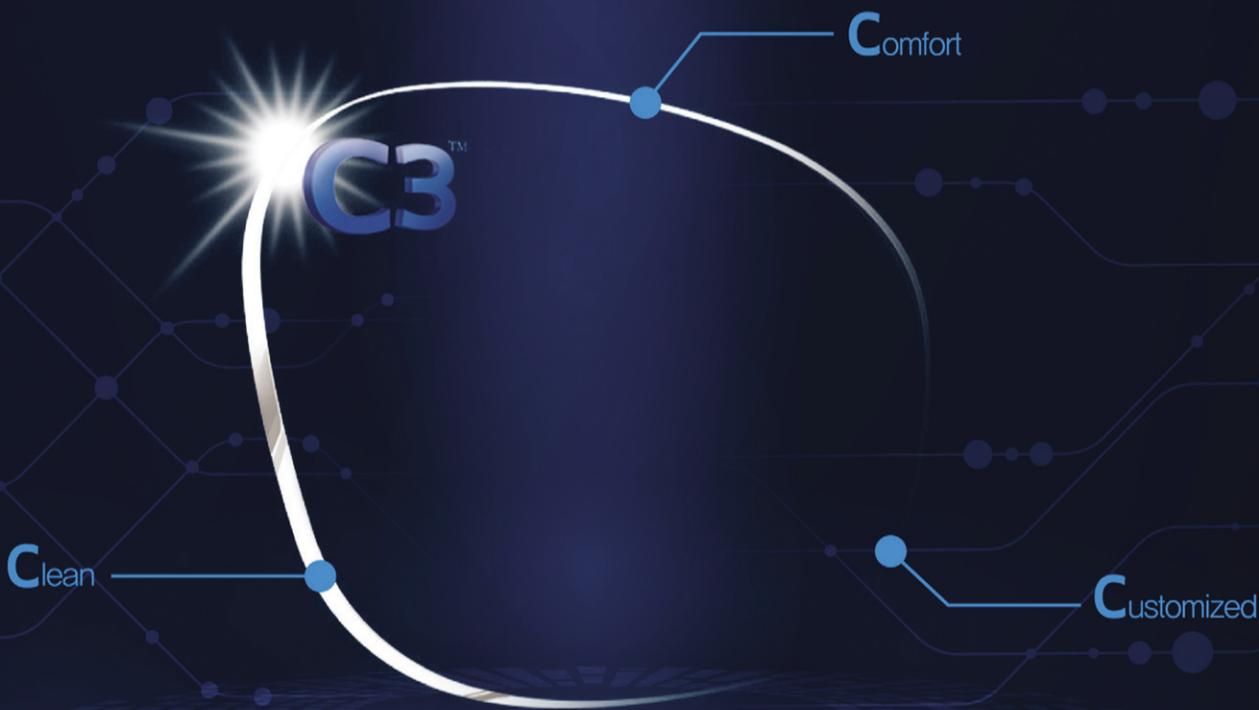
전후로 완성되므로 9세 이하 환자가 많다. 사시치료를 위한 안경 착용과 수술은 보통 이 시기에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경남의 한 안경광학과 교수는 “사시는 굴절이상 다음으로 유아와 어린이에게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눈의 비정상적인 증상”이라며 “시각기능의 발육을 위협해서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시는 조기 발견했을 때 교정율이 높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굴절이상으로 생기는 조절성 내사시는 조절마비 굴절 검사 후 안경 착용이 원칙이고,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사시는 빈도와 사시각을 고려해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C3TM Clear Vision, Better Life
안경렌즈

더욱 더 편안한 개인별 맞춤형 양면 비구면 렌즈

독일 최첨단 기술력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탄생하다



C3TM 개인별 완전 맞춤형
양면비구면렌즈
Comfort / Clean / Customized

- 독일 GF공법으로 넓고 편안한 시야 확보
- 개인별 완전맞춤형 렌즈 : 개인별 생체학적 특성과 착용습관까지 고려한 제작
- 안구의 회선 각도에 따른 설계 및 특수 최적화 설계 적용

- 슈퍼하드 멀티코팅으로 업그레이드된 내구성
- 무게와 두께감 40% 이상 감소(기존 자사 일반렌즈 대비 약 40%)
- 싱글비전, 누진다초점렌즈, 기능성렌즈(변색렌즈 가능)

社說

내년 회장 선거는 전진과 후퇴 분수령

안경사협회 회장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2월에 선출하는 협회장은 차수로는 제20대이고, 인물수로는 강중화 회장으로부터 현 김영필 회장에 이어 열네 번째이다.

안경사협회장에 출마 후보자는 대략 12월 정도면 수면 위로 떠오른다. 지금까지 20대 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는 지난 11월 초순에 열린 홍콩안경전시회에서 김종석 서울 회장이 유일하다. 다만 내년 협회장 선거는 안경원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힘든 때여서 출마자들은 자신의 몸을 불사르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선거에 나서야 한다. 행여라도 영광만 생각해 출마한다면 자신이나 회원들에게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안경사 회원들은 새 협회장으로 전쟁터의 탐보같은 영웅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다.

회원들이 바라는 새 협회장은 안경의 가격파괴를 완벽하게 근절시키고, 땅바닥에 떨어진 안경가격을 최소한 10년 전 가격으로 올리고, 안경원을 외면하는 고객의 발길을 되돌리는 지혜를 갖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안경 조제료의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이 당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임기 중엔 힘들겠지만 안경의 의료보험화를 위한 뼈대 정도 세워놓는 인물이라면 금상첨화다. 곳곳이 상처투성이고 앙상하게 메마른 안경원에 속살을 찌우는 탁월한 영웅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새 협회장은 협회 밖으로는 관계 부처와의 관계를 참쌀떡처럼 끈끈하게 회복시키고, 안경원의 잃어버린 9가지

장비를 되찾는 인물을 원하고 있다. 30년 전에 만든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의 규제 개혁 프레임에 갇혀 시시때때로 터져 나오는 콘택트렌즈의 온라인을 철저히 막는 수성(守成)에 탁월한 인물의 등장을 바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협회장 선거는 안경원을 혼란에 계속 빠져있느냐 아니면 위기 상황을 정상화로 이끄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적어도 협회장에 출마한 인물 중 이런 일을 해결하는데 적합한 인물에 투표하면 절반의 성공은 거둔다.

지금까지 일부 대의원은 협회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심지어 어느 대의원은 정치꾼처럼 지역에 얽매었고, 때론 지부장의 입맛에 맞추어 거수기 노릇을 해왔다. 그 결과 심하게 표현하면 협회와 회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협회장의 동조자가 되었다. 협회와 회원을 위한 참 일꾼을 뽑아야 하는 대의원이 오히려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선거를 해왔던 것이다.

또한 내년 협회장 선거는 편 가르기나 상대를 헐뜯는 흑색 선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아무 실익도 없는 피로스(Pyrrhic victory)의 승리 같은 선거가 되지 않도록 출마자나 대의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안경사 협회장 선거는 고대 에피로스의 왕 피로스가 모든 전쟁을 승리하고도 아군의 피해가 너무 극심해 승리를 스스로 포기한 상처받은 '피로스의 승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새 협회장은 회원의 고단한 삶을 희망으로 바꾸는 참봉사의 인물이 선출되어야 안경원에 웃음이 다시 찾아온다. /본지 허선

世評

낙엽의 시간

단풍의 시절이 가고 낙엽의 때가 다가온다. 무더운 여름철에 여왕처럼 군림하던 푸른 나뭇잎이 계절의 수레바퀴에 어쩔 수 없이 고객 숙여 지상을 향해 낙하를 기다리는 조락(凋落)의 신세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

인간은 모름지기 자연의 순환(循環)에서 영고성쇠(榮枯盛衰)를 느끼지 않았나 싶다. 낙엽기에 엽편 또는 엽쪽지의 기부가 이층(離層)이 형성되고 물질의 유통이 잘 안 되어 떨어져 나가는데, 그에 앞서 엽록소가 파괴되어 단풍이 드는 일이 많다. 환경조건으로 추위가 다가오면 나무가 추위를 대비해 몸속의 수분을 지하로 배설하는 까닭으로 잎이 말라서 낙엽이 되어 땅에 떨어져 스스로 거름을 장만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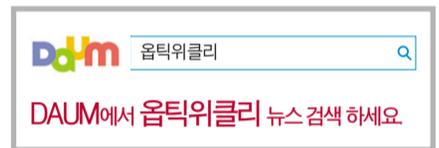
잎새, 잎사귀라고도 한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연상되게 마련이다. O.헨리의 '마지막 잎새(The Last Leaf)'가 떠오른다. 거짓 없는 착실한 실화 같은 내용을 담은 단편으로 세계적인 독자를 가진 작품이다.

수와 존시는 친구 사이면서 진행자이면서 존시는 주인공이다. 존시는 폐렴에 걸려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이다. 회복이 극히 어려운 환자인데 장례식 행렬의 마차수나 세고 있다. 그는 뭔가를 세고 있었다. 거꾸로 '열, 여덟, 여섯'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짓을 하는 것은 자기 죽음과 연관시키기 위해서다. '담쟁이 넝쿨에 달린 잎새 말야.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늙어빠진 담쟁이 잎새하고 네가 회복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니?' '어둠이 깃들기 전에 마지막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그러면 나도 죽게 될 거야.' 이밖의 인물은 또 한 사람이 있다. 버

만 할아버지다. 늙은 시골광부 모델 같은 화가이다. 그는 화가로선 실패한 사람이다. 체구는 작지만 성질이 과격한 그는 마음이 연약한 사람을 지독하게 비웃었다. 수는 버만에게 존시의 기괴한 망상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존시는 나무 잎새처럼 가냘프고 연약해서 한 가닥 집념이 되고 있는 잎새가 떨어지게 될 경우, 그녀도 같이 이 세상을 떠나버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버만은 충혈된 눈으로 '그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며 경멸과 조소를 퍼붓는다.

'빌어먹을 담쟁이 잎새가 떨어진다고 따라 죽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야?' 눈발이 섞인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이 놀랍게도 밤새도록 비바람이 휘몰아친 후인데도 잎새 하나가 벽돌담에 그대로 매달려 있지 않는가. 담쟁이 넝쿨의 마지막 잎새였다. '마지막 잎새가 남았네.' 존시가 말했다. '간밤에 틀림없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람소리가 심했거든. 오늘은 저 잎도 떨어져 버릴 거야. 그러면 나도 죽게 될 테고.'

'버만 할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세상을 떠나셨어. 할아버지는 이틀밖에 앓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비바람이 사납게 불던 간밤에 어디에 갔다 왔는지는 짐작도 할 수 없었데. 제멋대로 흩어진 붓과 녹색과 붉은색 물감이 섞여 있는 팔레트가 발견됐어. 그분이 마지막 잎새가 떨어져 버린 그날 밤에 그 자리에 저것을 그려 놓았지. 할아버지의 걸작품이야.' /우암 문용서(본지 편집위원)



나도코리아 | www.nadokorea.co.kr

스마트폰 홈페이지 m.nado.kr

도수렌즈 조제가 매우 쉬운
스포츠 글라스 - 애슬리



나도코리아 대구시 북구 노원로 48길 7 T 053-353-9992 F 053-351-4063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썼다! 벗었다! 하지 마세요

지금 가까이도 멀리도 잘 보이는 **누진렌즈**
바리락스® 피지오 3.0 하세요



차승원의 누진다초점렌즈 **바리락스 칸 시리즈** 를 검색하세요!

차승원
바리락스 전속모델 차승원

바리락스 칸 시리즈 안경사 프로모션

한국인에 꼭 맞는 누진다초점렌즈

바리락스 칸 시리즈를 일반 3.0 가격에 제공합니다!

- ✓ **내용** | 바리락스 칸시리즈를 일반 3.0 가격에 제공 (공급가격 기준)
- ✓ **기간** | 2017년 10월 1일 ~ 11월 30일 자정 주문 기준
- ✓ **참여대상** | 에실로 바리락스 판매처 (대리점 제외)
- ✓ **대상제품** | 바리락스 피지오 3.0칸 / 바리락스 컴포트 3.0칸
(굴절률: 1.67 / 1.60 / 1.50) (굴절률: 1.67 / 1.60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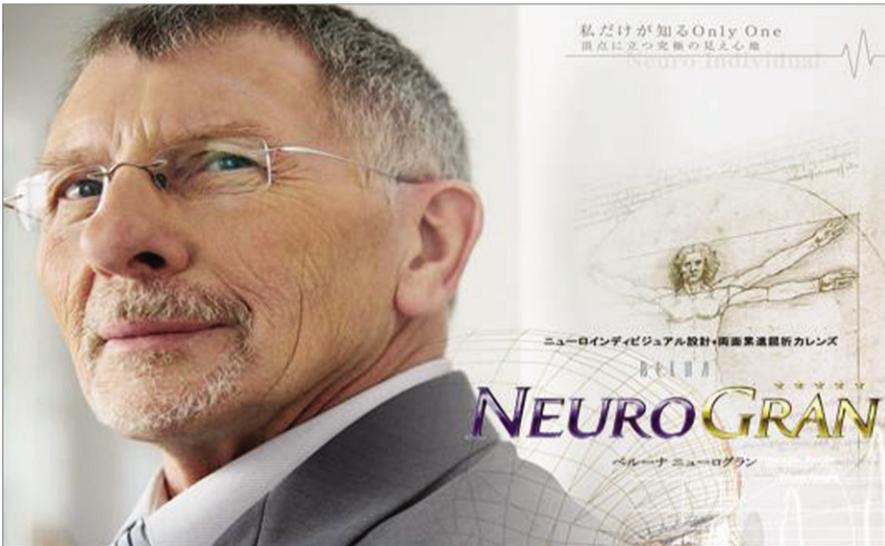


VARILUX

*자세한 내용은 담당 영업사원 또는 에실로 코리아 고객센터(1600 - 81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뇌과학으로 빚어낸 ‘뉴로그랑’... 고기능 수두룩

토카이렌즈, 양면누진·양면비구면 렌즈로 최상의 시야감 실현... 소비자에 따라 4가지 타입으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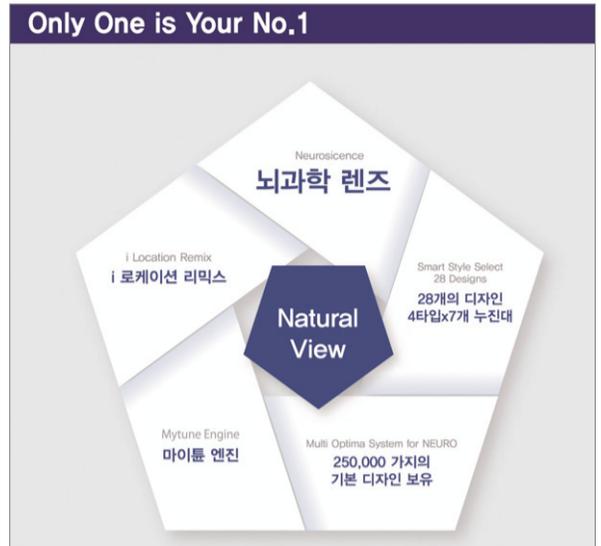


토카이렌즈(대표 장익희)에서 선보이고 있는 개인별 맞춤형 누진다초점렌즈 ‘NEURO GRAN’이 근래 안경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뉴로사이언스(뇌과학)를 기반으로 개개인의 눈과 렌즈, 프레임 등의 개인별 데이터를 렌즈 설계에 반영해 생산되는 토카이의 개인별 맞춤 누진렌즈 뉴로그랑은 최상

의 착용감을 실현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뉴로그랑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기본 디자인을 4가지 타입으로 선택 가능하고, 11~17mm까지 1mm단위로 7가지의 누진대를 조합하여 고르는 28가지의 디자인과 280,000 패턴 중에서 최적 설계를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고 사양의 누진렌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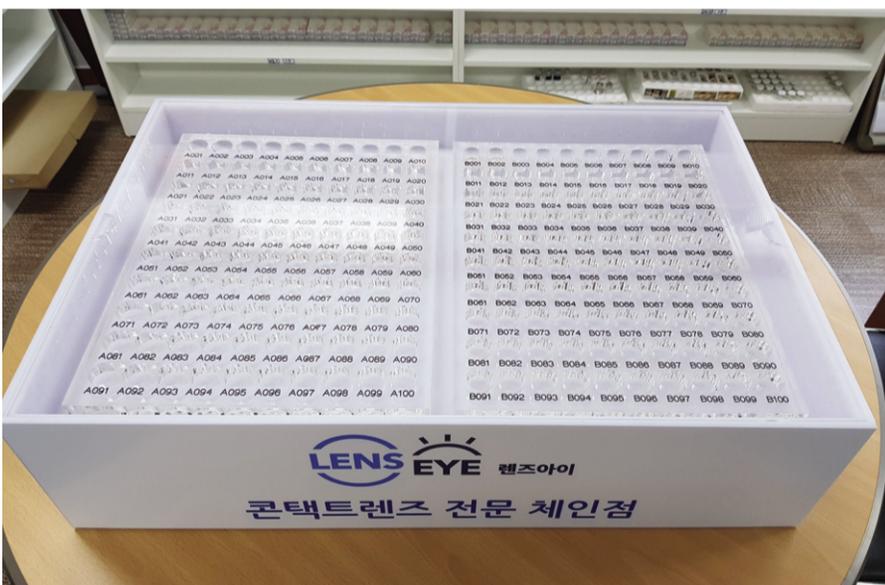
회사의 한 관계자는 “양면누진과 양면비구면 설계가 혼합된 뉴로그랑 렌즈는 ▶뉴로사이언스 ‘N식’ 양안 링크설계 ▶프레임 데이터를 설계에 반영하는 마이튠엔진 ▶N식와 이드 & 마일드 설계 ▶로케이션 리믹스(눈과 렌즈의 최적보정 시스템) ▶투과광 최적 설계(망막 초점 가 빛나는 렌즈다)”며



“‘뇌과학’이라는 토카이의 아이덴티티가 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퍼지면서 뉴로그랑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02)337-8666

국내외 콘택트 앞으로... ‘렌즈아이’ 출발!

국내외 콘택트 총망라한 스텝인 첫 등장... 가입 안경원은 모든 콘택트 편리하게 이용 가능



기재된 이후 전국의 많은 안경사들이 문의하는 것을 볼 때 현재 새로운 콘택트 체인에 대한 안경사분들의 열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자사에서 이번에 제작한 콘택트 진열판은 많은 양의 렌즈를 진열해도 소비자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LED를 넣어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스텝인숍 매장의 특성상 인테리어를 새롭게 연출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만, 만약 인테리어를 할 수 없는 매장이라면 이동이 편리하고 보관이 간편한 샘플판과 샘플판 진열장이 제품 진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사는 이외에도 쇼윈도용 미니 간판도 추가 제작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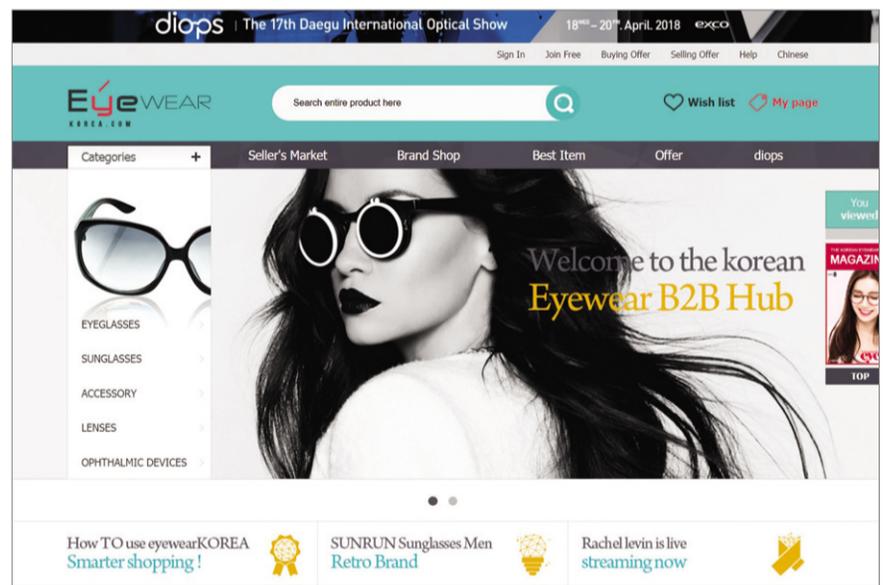
국내에서 모든 콘택트렌즈를 한 곳으로 취합해 유통하는 콘택트렌즈 전문체인 렌즈아이의 본격 출범했다. 지난 11월초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한 렌즈아이 체인본부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많은 안경사들의 관심을 받으며 체인점에 공급할 렌즈의 샘플판과 진열장 등을 제작 완료한 후 본격 공급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스텝인숍을 모집한다는 자사의 관련 기사가 ‘유통유키클러’에

문의 02)477-0873

‘아이웨어코리아닷컴’, 안경수출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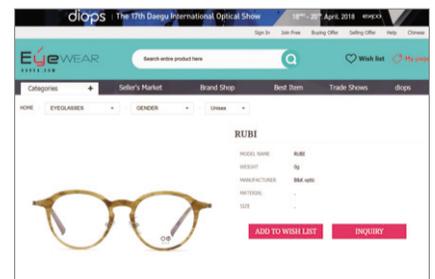
진흥원, 국내 155개 제조사 참여한 온라인 쇼룸 한국안경 수출에 한몫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원장 김원구)에서 운영하는 해외 수출업체와 바이어를 위한 글로벌 온라인 쇼룸 ‘아이웨어코리아닷컴(eyewearkorea.com)’의 활용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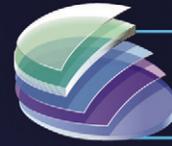
올해 1월 오픈한 아이웨어 코리아닷컴은 155개의 국내 안경 제조사가 입점한 온라인 쇼룸으로 진흥원은 각 브랜드의 온라인 무료 전시와 홍보를 지원하며 최근에는 홈페이지를 재단장했다.

이번 리뉴얼 작업으로 더욱 세련되고 트렌디한 화면을 선보이고 있는 아이웨어 코리아닷컴의 홈페이지는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메뉴 카테고리화 쇼룸에 모델 화보까지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진흥원은 코리아닷컴에 입점한 업체에게는 ▶해외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기업들의 상품 및 브랜드 홍보 ▶해외 신규 거래업체 및 바이어 발굴 ▶우수 바이어 매칭을 통한 수출 증진 등을 지원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코리아닷컴은 정확한 통계와 조사를 통해 해외 바이어와 국내 안경업체를 1:1로 매칭해 주고, 수시로 제품을 업로드해 가입업체의 제품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세계 어디에서든 해외 바이어는 몇 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아이웨어 코리아닷컴은 오픈 후 현재까지 약 63만명 이상이 접속했고, 특히 해외 바이어는 20개국에 120개사가 가입돼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053)350-7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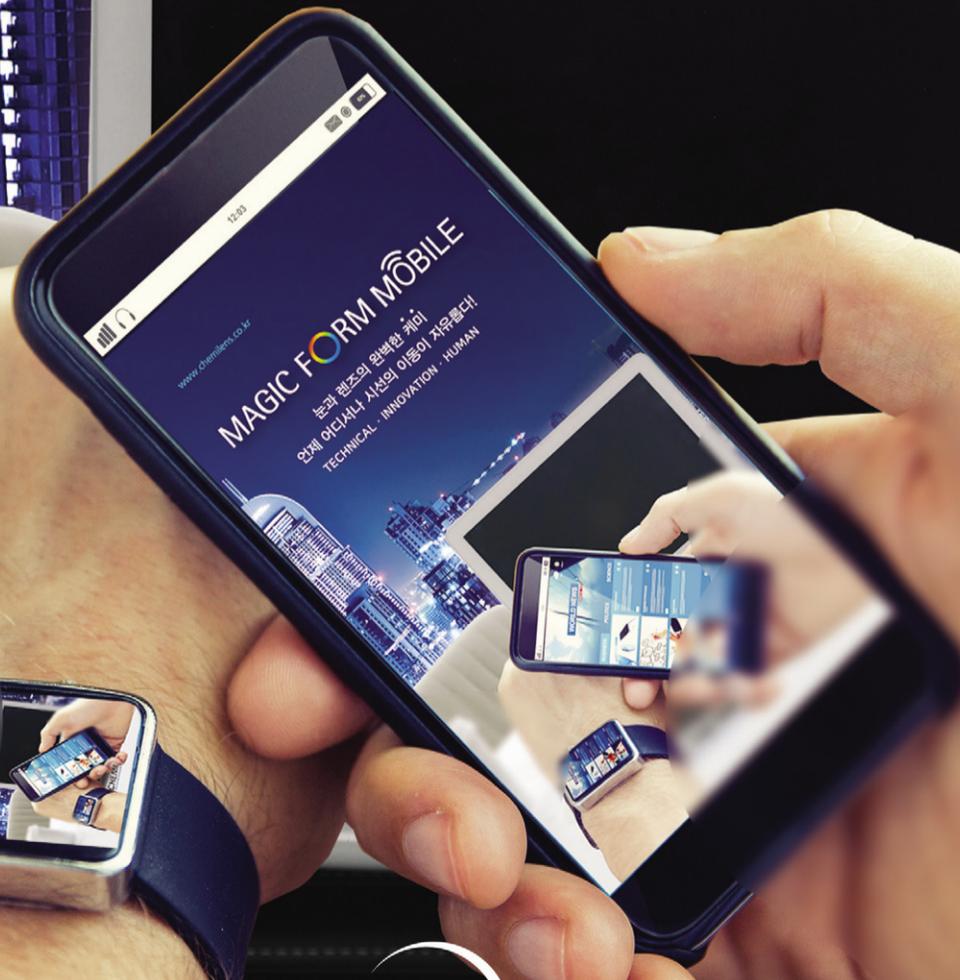
www.chemilens.co.kr



매직폼 모바일은 프리미엄급 고경도
AEGIS 코팅이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MAGIC FORM M^{MO}BILE

눈과 렌즈의 완벽한 케미
언제 어디서나 시선의 이동이 자유롭다!
TECHNICAL · INNOVATION · HUMAN



CHEMI
care for your eyes, care for your life

신뢰의 '나도코리아' ... 가격과 품질도 최고!

드라이버부터 안경테와 광학기까지 수천 가지의 제품 신뢰 유통... 전국의 안경원에 최상의 제품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기업의 혁신 연구를 40년 이상해온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찰스 오라일리 교수는 현대의 기업들은 '한 손엔 기존사업, 다른 손엔 신사업을 펼치는 양손잡이 경영을 하라' 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이 시간과 성공증후군에 빠져 혁신에 더디면 퇴보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일까. 안경원에서 취급하는 모든 부대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주)나도코리아(대표 이병원)는 수년전부터 최고 가성비비의 안경테와 선글라스를 판매하며 명성을 날리고 있다.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안경원에서 필요한 모든 아이템은 나도코리아에서 구입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듯 안경원의 모든 제품을 다양하게 취급 유통하고 있다. 더구나 나도코리아는 일선 안경사들의 절대 신뢰 속에서 안경원에서 꼭 필요한 수천 가지의 아이템을 최고의 가성비를 앞세워 자신 있게 선보이고 있다. 문의 053)353-9992

부대용품

▶판부렌즈

0.5부터 10.9까지 측정 가능한 판부렌즈. +와 - 두 가지가 한 세트.

▶조절폭주 측정자

조절폭주 측정자. 기존 측정자의 롱바디 버전. 고객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적합한 기능성 렌즈의 설명이 수월한 장점을 갖고 있다.



광학기기

▶오클리 홀브릭

오클리 홀브릭 안경테의 렌즈를 정확히 가공하는 렌즈 가공기. 나도코리아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출시한 렌즈 가공기는 새내기 안경사라도 2~3분 내에 쉽고 정확하게 가공할 수 있다. 기기의 조작이 간편한 것도 장점이다.



아이웨어

▶ATHLLY-6025

샤프한 하프립 스타일. 4가지 모델의 추가 판매로 인기 상승.

▶KARRA-182

기존 유행의 크기등 부분이 흔들거리는 문제점을 최소화한 컬렉션.



▲ ATHLLY - 6025



▲ KARRA-182





// 정밀하게
아니면
말하지 말라 //

정밀함은 위대한 성공을 가져다 주는 약속입니다.
Seiko는 누구보다 정밀한 안경렌즈의 생산을 추구합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모든 것에 정밀함을 선사하는 약속
이 정밀함을 경험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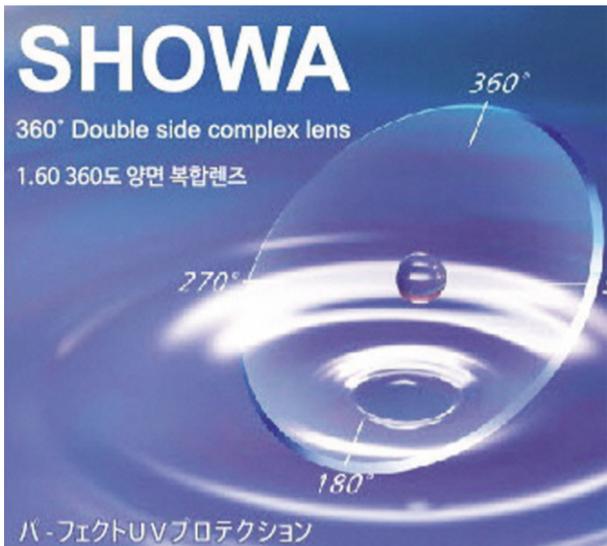
SEIKO

PRECISION FOR VISION

LENS

눈에 좋다! 360도 양면비구면렌즈

늘푸른옵티칼, 근시 진행 억제와 피로방지 효과 높은 360도 렌즈 시장서 인기 몰이



거 (pgy888****)에 '렌즈를 사용한 결과 아이들이 사용하면 근시 진행을 늦출 수 있고, 눈의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은 피로 방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렌즈를 빨리 좀 만났으면 좋았을텐데...' 라고 올렸다. 또 다른 블로거 (eunsi****)는 '더 가볍고, 얇고, 강하고, 방수효과도 있고, 75mm 투과율은 99%에

달하고 색채의 대비를 늘려 시야가 뚜렷해지며, 눈부심 방지 UV와 복사열까지 완벽 차단하고, 코팅이 쉽게 벗겨지지 않고 충격에 강하다니 믿음직스럽다'고 평가했다.

늘푸른광학의 한 관계자는 "360도 렌즈는 단순히 시력을 교정하는 렌즈가 아니라 근시의 진행을 늦춰주는 렌즈이고 특히 기능적으로는 시각적인 왜곡을 줄여서 피로까지 줄여준다"며 "출시 이후 안경원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1544-8668

(늘푸른옵티칼(대표 강유원)이 지난 8월말에 선보인 '360도 양면비구면 렌즈'에 대한 주문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 옵티칼 설계기술이 적용된 360도 양면비구면렌즈는 중심 초점 부분의 높은 선명도와 안구의 축이 높아지는 것을 통제하고, 무엇보다 제품 이를처럼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시야의 360도가 모두 편안해 제품 판매 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렌즈를 사용한 네이버의 한 블로

LENS

케미렌즈, 대전·대구서 세미나 개최

모바일에 최적화된 '매직폼 모바일' 설명회로 양대 도시서 연이어 속개



▲ 지난달 25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진행된 주케미그라스의 신제품 출시기념 세미나.

(주케미그라스(대표 박종길)의 신제품 출시를 기념하고 설명하는 세미나가 지난달 25일과 27일 대전과 대구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대전 유성호텔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지난 9월에 출시된 프리미엄 누진렌즈 'MAGIC FORM MOBILE' 시리즈의 특징점 설명이 중점적으로 소개되었는데, 매직폼 모바일렌즈는 넓은 원중근용부의 시야 확보와 한국

인에 적합한 누진대, 디테일 처방이 가능한 설계방식과 매직폼 모바일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인 '스마트 에디션' 등이 소개되어 참석 안경사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각 지역마다 안경사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케미렌즈의 우수성과 다양한 신제품이 소개됐는데 추후 각 지역에서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55)387-3030

LENS

에실로, 발달장애 선수단 후원

스페셜 유니페스티벌대회에 단초점렌즈 600조 지원... 16년째 해마다 후원



(주에실로코리아(대표 소효순)가 (사)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서 주최하는 2017스페셜 유니페스티벌대회에 안경렌즈를 후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강원도 인제에서 270여명의 발달장애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에실로코리아가 시력교정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표현을 못해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에게 안경처방에 필요한 Nikon 단초점렌즈 600조를 기증했다.

회사 관계자는 "시력이 불편한 선수들이 편안하고 선명한 시 생활을 누리

도록 안경렌즈를 후원했다"며 "앞으로도 자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유념하여 어려운 이웃들의 눈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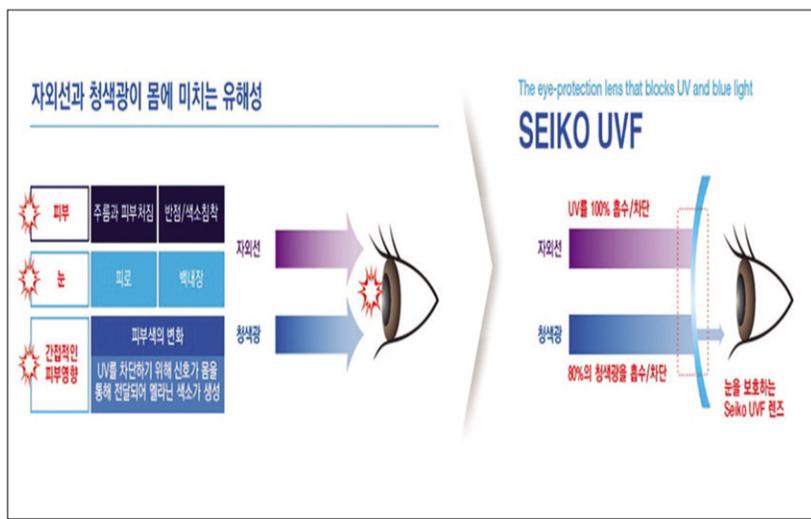
한편 스페셜 유니페스티벌 대회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스페셜올림픽 홍보를 위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스포츠 축제로 에실로코리아는 2002년부터 16년째 오픈닝 아이즈(Opening Eyes) 프로그램을 통해 안경렌즈를 후원해오고 있다.

문의 1600-8121

LENS

현대인의 필수렌즈 '세이코 UVF'

한국세이코, 빛 반사 아닌 청색광과 자외선을 흡수 차단하는 기능으로 효과 월등



한국세이코옵티칼(대표 추경의)의 SEOKO UVF렌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해로운 청색광이 발생하는 스마트폰과 PC 등의 디지털 기기는 물론 인체에 해로운 자외선으로 청색광과 자외선 차단렌즈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SEOKO UVF렌즈가 자외선 100% 차단과 420nm의 청색광을 80% 가까이 차단하며 현대인의 필수 안경렌즈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자사의 UVF는 청색광을 반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흡

수 차단함으로써 기존의 청색광 차단 코팅렌즈에서 나타나던 파란빛의 반사 현상이 없어 클레임이 적고 미용적으로도 아름답다"며 "누진렌즈나 단초점렌즈에 폭넓게 적용하며 85%까지 착색도 가능해 런칭 이후 주문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SEOKO UVF는 전체 연령대를 위한 일상용, 어린이 전용의 학교생활용, 회사원 전용의 사무용, 아웃도어의 외출용 등으로 적용 대상에 세밀하게 권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02)362-8226

시야와 편안함의 완벽한 조화

HOYALUX Lifestyle Balansis



LIFESTYLE

BALANSIS

첨단 테크놀로지

Lifestyle Balansis

는
첨단의 누진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명료시야와 편안함의
완벽한 밸런스를 실현한 프리미엄 누진다초점 렌즈입니다.

■ 편안함에 역점을 둔 렌즈 설계

누구나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는 최적의 누진 설계
기술로 다양한 착용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시야 제공

■ 첨단 렌즈 생산 기술

호야의 첨단 렌즈 생산 기술로 제품의 가치와
품격을 극대화

■ 현대인의 시각적 요구 반영

운전, 야외활동 등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의
고객에게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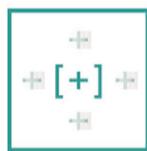
■ 다양한 편의성 제공

사이즈가 큰 프레임과의 뛰어난 호환성과
METS 옵션 기본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 극대화



국제 특허의 양면 복합 누진설계 기술 (IDSD)

- 시야 폭의 극대화
- 편안한 시선 이동



선명존 자동조정 기술 (Auto Adjust)

- 렌즈의 선명한 시야 영역을 눈과 일치시켜
어떠한 거리에서도 명료한 이미지 인식 가능



뷰 익스팬션 기술 (View Expansion)

- 렌즈 전 영역에 첨단 프리폼 최적화 공정을
통한 수차 보정으로 보다 선명하고 향상된
교정시력 제공



스태이블 뷰 기술 (Stable View)

- 이동 시, 시야의 흔들림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시야 제공

HOYA

LENS

‘클리어스 1.70’ 판매 고공 행진

하이비전, 높은 아베수와 얇은 두께로 큰 폭 성장... 저시력자들도 애용



(주)하이비전코리아(대표 황봉욱)의 Cleyes 1.70이 대표 주력 아이템인 UV ZERO에 못지않게 꾸준하게 인기를 모으며 판매량이 전년도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하이비전의 자체 집계 결과, 클리어스 1.70가 지난해 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UV 제로만큼의 기여도를 기록한 것이다.

하이비전의 한 관계자는 “자사의 클리

어스 1.70은 타사에는 없는 솔루션으로 높은 아베수와 얇은 두께, 그리고 뛰어난 가공성으로 고도수 사용자들에게 최상의 만족감을 제공한다”며 “미용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도록 얇은 두께와 훌륭한 광학적 성능을 가진 클리어스 1.70은 최근에 낮은 근시 도수의 렌즈 착용자들도 폭넓게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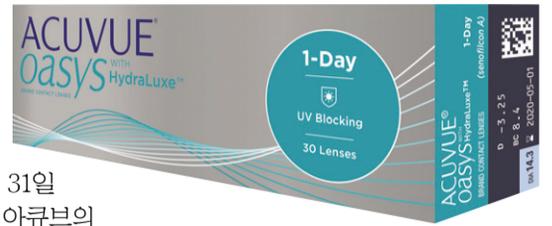
문의 031)278-1891

CONTACTLENS

오아시스 원데이 출시 1주년 이벤트!

아큐브 원데이 구매 시 모든 구매고객에게 스타벅스 음료권 증정

(주)한국존슨앤드존슨비전(대표 김희경, J&J)에서 일일 착용 콘택트렌즈 ACUVUE oasys 1-day 구매고객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증정하는 감사 이벤트를 오는 12월 31일 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아큐브의 모바일 멤버십 애플리케이션 ‘마이아큐브’를 통해 아큐브 오아시스 원데이 30팩 또는 90팩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구매 용량에 상관없이 1팩 당 1개의 아메리카노 기프트권이 증정되는 행사다.

또한 J&J는 이와는 별도로 구매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아메리카노를 한 잔 더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필수 해시태그 #아큐브 #오아시스원데이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제품 구매 인증 사진을 게시하면 누구나 아메리카노를 제공받는다.

J&J 마케팅팀의 채유경 부장은 “아큐브 오아시스 원데이의 출시 1주년을 맞아 전개하는 이번 이벤트는 고객에 대한 감사의 행사”라며 “앞으로도 자사는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 분들이 안경원이나 마이아큐브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는 행사를 계속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의 080-023-0202

CONTACTLENS

바슈롬, 김형준 대표이사 재취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비전케어 대표 이어 바슈롬 대표에 취임



(주)바슈롬코리아의 전임 대표였던 김형준 대표(바슈롬말레이시아 대표(사진))가 최근 신임 대표로 재취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1일자로 재선임된 김형

준 대표는 2010년부터 약 5년간 바슈롬코리아의 대표로 재임할 당시 전 세계에서 네츄럴 컬러 콘택트렌즈를 한국에 첫 번째로 런칭하고, 이어 렌즈관리용액 Bio true의 성공적인 출시로 바슈롬코리아의 사업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업적 성과로 김형준 대표는 그동안 바슈롬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이번에 바슈롬코리아의 대표로 재취임한 것은 국내 시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경영인으로서 비전케어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형준 대표는 “바슈롬코리아의 대표를 다시 맡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우리는 최고 품질

의 제품과 서비스를 밑바탕으로 고객중심, 현장중심의 영업을 펼쳐서 시장의 영역을 키우는데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70-7167-9922

GLASSES

출시 때마다 ‘아크로폴리스’ 관심집중

비아리코, 대통령 안경 연상시키는 신상 15종 출시... 다양한 디자인 저가격에 주문 쇄도



(주)비아리코에서 근래 ‘대통령 안경’으로 회자되고 있는 ACROPOLIS의 신모델 15종을 선보였다. 이번 신상은 심플하고 가벼우며, 트렌디한 디자인에 실속 있는 가격대의 시리즈로 특히 안경사들의 렌즈 조립을 쉽도록 립 나사를 장착해 안경원으로부터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비아리코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신상 라인인 비아리코몰(http://fleeco.com)을 통해 살펴본 후 주문할 수도 있다”며 “오는 11월 말경에는 완벽히 새로운 개

념의 ‘新솔텍스형’ 안경을 출시해 비아리코가 소비자들과 안경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입증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월부터 출시되고 있는 이번 시리즈는 문재인 대통령이 근래 애용하고 있는 안경을 연상시켜 ‘이니 굿즈’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번 시리즈 역시 출시 전부터 안경원의 예약주문을 받고 있다.

문의 매장 02)319-0718-9 / 사무실 02)319-2300

프리미엄 칼라콘택트렌즈

LENSEYE



너~ 하나, 나~ 하나
**마음대로
한쌍 더!**

'LENSEYE' 렌즈는 착색부가 눈에 직접 닿지 않아
건강하고 아름다운 눈빛을 선사합니다.

한쌍 구매시
한쌍 더!
15,000원~

1+1

실리콘 하이드로겔
칼라렌즈
20,000원~

가격대별 2쌍 선택 (색상/도수/제품 교차 선택 가능)

15,000원

- 프리미엄 칼라렌즈 -

1+1



허니-브라운 / G.DIA 13.1mm



허니-초코 / G.DIA 13.1mm



허니-그레이 / G.DIA 13.1mm



20,000원

- 실리콘 하이드로겔 칼라렌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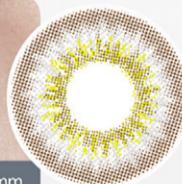
1+1



라미 루비-브라운 / G.DIA 13.4mm



라미 루비-그레이 / G.DIA 13.4mm



25,000원

- 실리콘 하이드로겔 칼라렌즈 -

1+1



라미 루비-브라운 / G.DIA 13.1mm



라미 루비-초코 / G.DIA 13.1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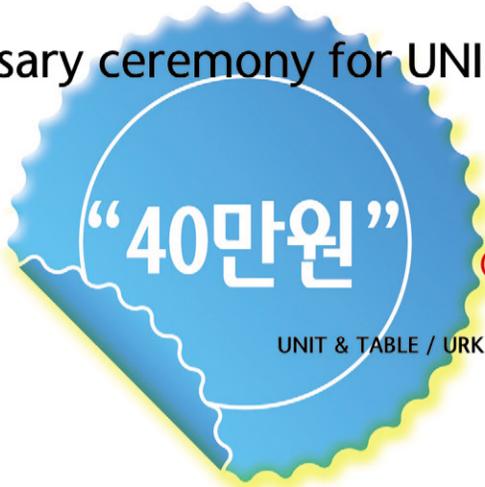
라미 루비-그레이 / G.DIA 13.1mm



렌즈아이 02)477-0873

안경랜드(구리 인창동) / 그랑프리(구리) / 그랑프리(중계) / 그랑프리(아셈) / 1001(송내)
고려(아현) / 비추미(영주) / 보이스(제주) / 천리안(증평) / 시연(울진) / 아름다운세상(행당)

Anniversary ceremony for UNICOS Building !



(무이자 36개월 VAT 포함)

에 만나 보세요.

UNIT & TABLE / URK-700 / UDR-800 / ULC-800S (24인치, 무편광) / 렌즈셋트(고급형)(검안경 58.62.66 포함)

검안 장비 풀셋트에 렌즈셋트를 한번에 구입



The Fast Wireless Network System

